

Propylene, 500달러 버티기 힘들다!

FOB Korea 510-530달러로 15달러 하락 ... PP 가격 보합세 머물러

Propylene 가격은 6월20일 FOB Korea 톤당 510-530달러로 15달러 하락했다.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유럽산 프로필렌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전주에 이어 또다시 하락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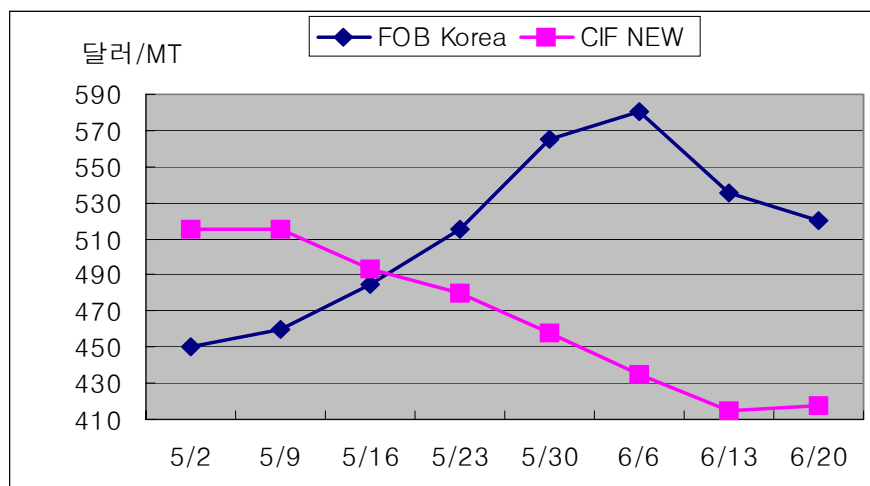
최대의 유도제품인 PP 가격이 정체 또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PP 생산기업들은 7월 출하가격을 CFR 700달러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PP 내수가격이 ex-works 톤당 7000원으로 100원 올랐으나 수입가격 기준으로는 CFR China 톤당 65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프로필렌 수출가격은 1500톤이 톤당 FOB 530달러에 오히려 오를 수 있었으나 수입선들은 FOB 500달러 이하를 요구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Prop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프로필렌 가격은 6월20일 Polymer 그레이드가 CIF NWE 톤당 400-415유로, Chemical 그레이드는 395-410달러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Chemical Journal 2003/06/23>